



지난 24일 군산 월명구장에서 2009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KIA 선수단이 25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경기 히어로즈전에 앞서 12년만에 되찾은 리그 우승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워치라기자 jrwi@kwangju.co.kr



## KIA 축제 분위기속 리그 마감

2009시즌 정규리그 우승자 KIA 타이거즈가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시즌 최종전이 열린 25일 KIA 선수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전날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 대비한 훈련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진행됐다. 정상적으로 훈련을 해야했던 것은 물론 인터뷰와 사인 요청이 쏟아지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휴식을 반납해야 했다. 이종범·김상현·최희섭 등 우승의 주역이 된 선수들은 연달아 이어

### 빛속에도 팬들 몰려 사인볼 요청 등 선수들 즐거운 비명

지는 인터뷰에 유명 연예인 못지 않은 인터뷰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전날부터 축하전화와 세례를 받았던 선수들은 25일에는 사인볼 요청에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했다. 덕분에 사인볼은 기념품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됐다. 선수들은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사인과 인터뷰를

소화해야 했지만 우승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한 확실한 팬서비스를 자청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133경기를 치르면서 늘 가슴 졸여야 했던 조범현 감독도 이날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승 축하객들을 맞이했다. 우승을 축하하는 선물들도 쏟아졌다. 특

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팀 우승을 조력한 이종범은 10여년이 넘게 한결같이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팬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기도 했다. 이 팬은 'V10'을 기원하는 의미로 1993년에 집어 넣은 학을 하트 모양의 유리 병에 담아 보내 이종범을 감동케 했다. 마지막까지 항방을 알 수 없는 1위 싸움을 벌이면서 강행군을 이어온 KIA 선수단은 시즌 마지막 날 가장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김여울기자 wool@

### 포스트시즌 평일 오후 6시·주말 오후 2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부터 시작되는 2009 CJ마구마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시작 시간을 확정했다. 포스트시즌 경기 개시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이다. 단 추석연휴 첫 날인 10월2일 경기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한다. KBO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지상파 TV로 중계한다고 전했다. 포스트시즌 연장전 규정은 페넌트레이스와 마찬가지로 12회까지이며 승패를 가리지 못하면

무승부로 처리한다. 당초 한국시리즈 5차전은 10월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국체전 개막일과 겹쳐 10월 21일로 바뀌었다. KIA가 지방팀인 SK 또는 롯데와 한국시리즈를 치르면 1.2차전 광주구장, 3.4차전 문학 또는 사직구장, 5.6.7차전은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KIA가 서울팀인 두산과 한국시리즈에서 만나면 1.2차전 광주구장, 3.4.5차전 잠실구장, 6.7차전 광주구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전남도 F1 성공 기원 무등경기장에서 'F1-day'

전남도는 25일 기아 타이거즈 시즌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무등경기장에서 F1지원법 제정을 축하하고 성공 기원을 기원하는 'F1-day(데이)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광주 보건대학 학생과 교직원 2천200여 명과 함께 했으며, 전남도는 경기 전 F1 동영상 방영과 'F1 성공기원 막대풍선' 응원 등을 통해 F1 대회비를 무등경기장에서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광주 보건대 학생과 응원

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아 타이거즈의 V10 엔진과 함께 내년 10월 영암에서 열리게 될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응원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향후 F1 대회의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 이 같은 F1 대학생 서포터즈 관련 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0 F1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홍명보호, 카메룬 무조건 깬다

### U-20 월드컵 내일 새벽 일전

'죽음의 C조 통과에 최대 분수령이 될 카메룬과 첫 판에 승부를 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오는 27일(한국시간) 오전 1시45분 이집트 수에즈 시내의 무바라크 스타디움에서 카메룬과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벌인다.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26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에 나선 젊은 태극전사들이 1차 목표인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판문이다. 한국은 16강 진출의 첫 걸목에서 만나는 아프리카의 '북방' 카메룬과 U-20 대표팀끼리 한 차례도 맞대결한 적이 없다. 카메룬은 지난 1999년 나이지리아 대회 이후 16년 만에 본선 진출이지만 지난해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을 만큼 만만찮은 전력을 갖췄다. 특히 카메룬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때 한국의 8강 진출을 가로막았던 '속적'이다. '리틀' 태극전사들이 선배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카메룬과 첫 경기 승리가 중요하다. 2차전(29일)에서 맞붙는 독일은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U-19 선수권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달성한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3차전(10월3일) 상대인 미국 역시 북중미 예선을 2위로 통과한 강팀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C조' 탈출에 제물로 삼으려는 카메룬 제압에는 일본과 김동섭(도쿠시마)이 선봉장으로 나선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은 김동섭과 박희성(고려대)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 김동섭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사실상 낙점했다. 김동섭은 일본 프로 무대에서 경험이 풍부한 데다 두바이 전지훈련 기간 알 아힐리와 평가전에 선발로 나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알 아힐리와 경기 때 후반에 교체돼 들어가 동점골을 뽑아냈던 박희성은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좌우 날개로 이승렬(서울)과 조영철(니가타)이 카메룬과 경기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원발 달인' 김보경(홍익대)과 고교생 최성근(안남고)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를 예약했다. 김보경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담 키커 특명을 받았다. 대표팀 막내인 최성근은 2007년 캐나다 대회 때 끊겼던 고교생 국가대표 맥을 잇는다. /연합뉴스

### 한국실업축구연맹

#### 새 회장에 권오갑씨

한국실업축구연맹은 2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2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권오갑(58) 현대중공업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제7대 실업연맹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오갑 신임 회장은 자진 사임한 송재병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12년 12월까지 3년3개월간 연임을 이끈다. 권 회장은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 환곡

- ▲정후채·박성희씨 장남 육석근 후인 반려·관리계씨 차녀 후인터 디엠 끼우 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 ▲김희채·손정애씨 막내 성주군 김양욱·김준순씨 차녀 유경양=27일(일) 오후 1시 웨딩의 전당 금호3층 노블레스홀.

### 무덤

- ▲김민범씨 별세 복석·복남·복실씨 부친상=발인 27일(일) 담양 새마을장례식장 3분향소. 061-383-4444.
- ▲신찬봉씨 별세 성식(금호타이어)·광식(기아자동차)·성숙·성순·삼숙씨 부친상=발인 27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문귀녀씨 별세 송대수·응수·근수·민수·홍수·지수·봉금·복실·연숙·봉춘씨 모친상=발인 27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김희덕씨 별세 태균·기춘·영자·영옥·성자·복순씨 부친상=발인 26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 ▲김규해씨 별세 해인·혜진·지혜씨 부친상=발인 26일(토)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대한민국 종합일간지

#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 02-3779-8008

RADIO

100.3MHz

100.3MHz

100.3MHz

가톨릭방송, 전국호국선

CBS

060-600-1031